

‘강진형 힐링로드’ 걸으며 일상 속 여유 즐긴다



강진군이 조성한 ‘보은산 트레킹길 (둘레길)’이 15.6km 전 구간을 모두 연결하며 자연을 누리는 생태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군, 보은산 둘레길 전구간 개통...생태관광 기반 조성 강진원 군수 “군민·방문객에 쉼터...여가 공간 확충”

강진군이 조성한 ‘보은산 트레킹길 (둘레길)’이 15.6km 전 구간을 모두 연결하며 자연을 누리는 생태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과 군동면, 작전면, 성전면을 아우르는 보은산 일원에 단계적으로 조성된 보은산 트레킹길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에서 자연을 마주하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주목

받고 있다.

보은산 트레킹길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장기 프로젝트로, 4개 구간에 걸쳐 트레킹 코스가 완성됐다.

1차구간은 강진읍 동성리에서 군동면 파산리를 잇는 3.2km, 2차구간은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전면 평기리로 이어지는 2.8km, 3차구간은 작전면 평기리와 성전면 명산리를 연결하는 약 2.0km가 개설됐

며, 마지막으로 성전면 명산리에서 강진을 남성리로 다시 돌아오는 약 2.3km의 4차구간이 올해 조성됐다.

트레킹길 전 구간에는 목계단, 폐수로, 돌의자, 이정표 등이 설치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완만한 경사와 자연 친화적 노면 설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사계절 변화하는 숲의 경관은 걷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트레킹길 전 구간을 안내하는 이정표 제작과 파산리에서 작전면 평기리로 이어지는 2.8km, 3차구간은 작전면 평기리와 성전면 명산리를 연결하는 약 2.0km가 개설됐

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보은산 트레킹길은 강진이 가진 숲의 매력을 담아낸 길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소중한 쉼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연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산 트레킹길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쉰 수 있는 공간으로,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고요한 풍경과 맑은 공기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돼 주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강진형 힐링로드’로 자리잡으며, 강진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

건강한 무안을 걷다...전문 걷기리더 양성

군, 1급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운영 완료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과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3주간의 1급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2급 걷기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2급 자격 과정보다 한 단계 높은 전문교육으로, 지역 내 걷기운동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실시됐다. 교육 결과 총 12명이 교육 수료 후 한국걷기협회 인증 평가를 거쳐 1급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1급 과정은 걷기이론, 자세분석, 안전지도법, 환경코칭 실습, 하체근력운동, 보행 측정장비 관리법 등 다양한 심화 과정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희소성 높은 교육과정이다. 특히 수료 후에는 지역 걷기동아

리 코치, 건강 걷기 프로그램 강사,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협력 강사 등 지역의 전문 걷기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과정을 통해 전문 걷기지도자 인력풀을 확충하고, 지역별 걷기동아리 운영의 자생력을 높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걷는 무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성철 무안보건소장은 “1급 걷기지도자는 단순한 걷기운동 지도자를 넘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건강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걷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 걷기동아리 운영, 건강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걷기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무안=성명준 기자 tjdaudns@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과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3주간의 1급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완료했다.

신안, 한국 분재 아름다움 전 세계에 소개

7~11일 ‘ABFF 컨벤션&대한민국 분재대전’ 개최

신안군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1004섬 분재정원에서 ‘2025 대한민국 분재대전’과 함께 ‘2025 ABFF 컨벤션’을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양분재우호연맹 (ABFF) 컨벤션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분재 관련 행사로, 지난 2023년 제7회 필리핀 마닐라 대회 이후 2년 만에 신안군에서 열리게 됐다.

‘울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 분재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 분재 교류의 중심지로서 신안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일본, 대만 등 10개국의 분재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국내 명품분재 작품 30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 분재교류 확대와 우호 협력을 위한 세계분재우호연맹 (WBFF), 중국 바오딩 가든, 1004섬 분재정원의 업무협약(MOU)이 예정돼 있어 이



번 대회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한민국 분재대전과 ABFF 컨벤션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분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축제다”며 “신안군이 세계 분재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떡매 치며 가을 추억 담았어요” 최근 담양 대덕면 운암저수지에서 열린 ‘제1회 대덕면 물구름길축제’가 주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가을 정취가 짙은 운암저수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절미 만들기 체험에 나선 관광객들은 직접 떡매를 치며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제공=담양군

영암, 외국인 노동력 확보 3년 연속 ‘전남 최다’

10월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218건 발급

영암군은 10월 말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218건을 발급해 3년 연속 전남도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

을 충족할 경우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지역특화동포비자(F-4-R) 등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한국에 초청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전남 최다 발급은 영암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농·축산업 분야 우수 노동력 확보에 노력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은 올해 지역우수인재 28

명, 숙련기능인력 182명, 지역특화동포 비자 8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범사업이 진행된 지난 2023년에는 126명, 이 사업이 이어진 2024년에는 111명을 추천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조선업과 농·축산업 분야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정 속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 인력 확보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진도, 내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모집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17종 112억원 규모

진도군은 해양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2026년 해양수산업’ 총 17종(국비 7종, 도비 8종, 군비 2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수산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김 활성처리제 지원,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지원 등 총 17종이며,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공고문은 진도군청 누리집(www.jindo.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신

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진도군수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개최

스마트농업 발전 전략 제시

해남군은 오는 10일 우수영 울돌소리 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농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4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심교목 농업농업과학원 농업기상연구실장의 ‘기후위기 대응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김광수 서울대 교수의 ‘작물 모델 기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이승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네이처 포지티브와 스마트 농업의 발전 방향’, 황규승 ㈜경농 미래전략본부 상무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장단기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또 조재일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등 약 100ha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혁신적인 스마트 농업 전략을 현장에 적용해 ‘농어촌 수도’ 해남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수도 해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